강진군 고려청자 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첫 걸음

서울서 '연구자료 집성' 학술대회
1994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록
2026년까지 등재 우선 대상 목표

강진군이 고려청자 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위한 걸음을 뗐다.

강진군은 최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과 한국의 고려청자 연구자료 집성'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강진군 대구면과 칠량면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청자요지의 50%를 차지한다.

지난 1963년 국가사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강진도요지'는 지난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문화재청 직권으로 등록됐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강진군은 장기 계획을 14단계에 걸쳐 세웠다. 현재 3단계까지 마무리했으며,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도 완료됐다.

강진군은 해마다 2~4개 유지되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강진도요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청자 도시의 자부심과 위상을 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강진군은 연말까지 세계유산 연구자료를 집대성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한국의 고려청자 원료와 산지 분석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주제 발표는 '고고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권혁주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일제강점기 요지조사와 고려청자 자료 수집'(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전시운영팀장), '한국 고려청자 연구의 동향 분석'(김태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고려청자 국외 연구 동향'(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전시를 통해 본 고려청자 인식 변화와 특징'(강경남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가 돼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세계유산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강진군은 해마다 지역의 대표 축제로 청자축제를 개최하고 청자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청자 도요지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려청자 도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고려인의 기술과 문화가 지상과 바닷길로 전파돼 각 나라의 도자 문화 형성에 큰 파급력을 미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작게는 강진군과 대한민국의 일이지만, 크게 보면 이는 인류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엄중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근 '세계유산과 한국의 고려청자 연구자료집성' 학술대회를 열고 강진도요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진군 제공〉

'임대료 0원' 나주시 '취업청년 아파트' 57명 이달 말 입주

보증금 전액 지원…관리비만 부담
68명 신청…내년까지 100호 공급

이른바 '0원 아파트'라 불리는 나주시 취업청년 임대주택에 이달 말 새 주민들이 둥지를 튼다.

나주시는 최근 '취업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57명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나주시에 전입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0원 아파트'에 입주한 청년들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된다.

나주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송월동, 삼영동 부영아파트 15호씩 총 30호를 마련했다.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100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은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이뤄졌다. 18~45세 청년 가운데 나주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살다가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68명이 신청했다.

나주시는 청년 임대주택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대상자 57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달 말 나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0원을 내고 거주할 송월동 부영아파트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가족 동반 신청할 경우 주택 1호씩을 우선 제공한다. 1인 가구 신청자 54명은 1호당 2명씩 배정한다.

해당 주택은 새로 단장을 마치고 부영주택과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했다.

동·호수 추첨과 입주대상자 사용계약을 마친 뒤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살아왔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청년 인구 유입과 산단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부영주택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원목 표고버섯 재배 자동화 시설 도입

버섯재배산업연구원 종균 자동 접종장치 시연회…일손 도움 기대

장흥군이 최근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원목표고 종균 자동 접종장치 시연회에서 새로운 재배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장흥군 제공〉

원목 표고버섯의 고장 장흥군이 재배 자동화 시설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배 시험장에서 원목표고 종균 자동 접종장치 시연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장흥군, 장흥군의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도,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등 표고 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선보인 원목표고 종균 자동 접종장치를 운전해보고, 효율적인 운영·보급 방안을 논의했다.

장흥군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구슬형 목종균과 마감재를 동시에 개발·적용했다.

원목표고 종균 자동접종장치는 표고 재배인 감소와 농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원목 이동부터 접종 후 마감까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9년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장치 설계를 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후 산림청 연구과제에 선정돼 사업비 8억 2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국내 원목표고 생산 농가 환경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게 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전남 첫 명품 '안평쌀' 품종 도입

장성군이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명품 '안평쌀' 품종 도입에 나섰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김한종 군수와 군의회 의원, 백순호 글로벌장성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평쌀 시식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안평'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 밥맛이 달고 찰기가 돌아 지난 2020년에는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에서 처음으로 안평 품종 도입에 나섰다. 안평쌀은 장성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이라는 게 장성군 측 설명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남면에 18.5ha 규모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이후 파종부터 수확, 판매, 유통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다.

장성군은 전문가 교육과 현장 상담을 벌여 참여 농가의 기술력을 끌어올렸다.

쌀 생산 농가에 ▲파종량 준수(모판당 150g) ▲드문 모심기(평당 50주) ▲질소질 비료 정량 준수(10a당 7kg) ▲병해충 적기 방제 ▲물 관리 등의 재배 기술을 전수했다.

장성군이 이번에 생산한 안평쌀은 농촌진흥청이 고품질 기준으로 내세운 기준(단백질 6.5% 이하·아밀로스 20% 이하)을 충족했다.

장성 안평쌀은 단백질 5.7%, 아밀로스 18%를 기록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밥맛이 달고 찰기가 돌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성 대표 쌀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읍에 2026년까지 4층 규모 데이터센터

진인터내셔널과 조성 투자협약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에 오는 2026년까지 지상 4층 규모 데이터센터가 건립된다.

담양군은 최근 군청에서 ㈜진인터내셔널과 '한국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김정재 ㈜진인터내셔널 회장이 참석했다.

담양군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홍보를 지원하고, ㈜진인터내셔널은 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보탠다.

㈜진인터내셔널은 오는 2026년까지 7414억원을 투자해 담양읍 삼만리(산41-3번지) 5만5642㎡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총면적 2만5000평(8만2645㎡)으로, 지상 4층 규모이다.

이곳에서는 보건·의료·통신·금융 분야 자료를 통합 관리한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저장 장치 등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센터 건립으로 인해 15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담양군 측은 내다봤다.

담양군은 데이터센터 연관 기업을 유치해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병노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 조성으로 지역의 고용증대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경찰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 총력전

함평경찰이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농산물 보관장소, 정미소, 도로가 벼 야적지 장소에 대해 현장 진단을 실시 취약 장소에 대해 자율방범대 등 주민 참여를 통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경찰은 최근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취약 장소인 정미소와 벼 저장창고에 대해 방범 진단과 함께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사진〉

또 농산물 보관장소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낯선 사람과 수상한 차량 발견 시 차량번호와 색상 등을 기록하고 112로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윤창기 함평경찰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 치안 활동 전개로 지역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리적 표시 '화순 작약' 수매로 품질 강화

kg당 3500원 미만땐 600원 지원

화순군이 지리적표시 농산물인 작약을 사들이며 품질 강화에 나선다.

화순군 지리적표시 농산물 42호인 '화순 작약'은 화순군한약재유통센터가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수매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지리적표시 농산물은 '화순 작약'(42호)과 '화순 목단'(43호)이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등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리적 특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화순지역 흙은 물 빠짐이 좋고 햇볕과 바람이 잘 든다. 유기질 함량이 높은 사양토·식양토로 구성돼 작약을 재배하기 좋은 토질이다.

작약을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한 지난 2012년에는 재배 면적이 141ha에 달했으나, 작약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산 면적도 줄고 있다.

화순군은 1억원을 들여 작약 가격이 kg당 3500원 미만일 경우 kg당 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지역에 사는 농업인이나 경영체 등록이 된 필지에서 재배된 작약에 대해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작약 식재 농가에는 뿌리 가격을 ㎡ 당 500원을 지원한다. 유박(비료) 구매 비용은 화순군생약초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포당 5000원을 지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농산물 작약의 생산자를 보호하고 '화순 작약'이 지리적 표시농산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